

“여성예비군 신고합니다”



“충~성” 3일 오전 열린 ‘광산구 여성 예비군 대대 창설식’에서 여성 예비군들이 서열원 31사단장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줌마들이 군복을 입고 향토예비군으로 변신했다. 3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31사단 예하 503여단 광산예비군 1대대 연병장. 사열대에 내걸린 ‘여성 예비군의 입소를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죠”라며 질문을 마구 쏟아낸다. 소대장의 힘찬 구령이 이어진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거수경례와 함께 쏟아진 아줌마들의 힘찬 외침이 사열대를 떠날라버릴 듯하다. ‘첫 입소’

3일 첫 소집된 광주 광산대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68명의 정예원들이다. 40대가 129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57명, 30대 38명이다. 이 중 간호장교 출신이 한 명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아줌마’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3개 소대로 나뉘어 의료구조·예비군 급식지원 등 기동충호 임무를 맡게 된다. 주민속원사업 지원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도 벌인다.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을 통해 안보교육·개인회기 사격·응급처치 등 예비군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닦는다.

주부 최수정(41)씨는 “말들에게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해 지원했다”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광산대대 첫 창설 168명 입소 의료구조·급식지원·사회봉사 활동

연병장 중앙에는 얼룩 무늬 전투복 차림의 여성들이 소대별로 4명 종대로 정렬해 있다. 입소식에 앞서 서로 옷 매표를 고쳐주며 잔뜩 긴장한 모습은 어느 훈련소와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아줌마’들은 여유가 있다. 남성 교관이 옆을 지나가자 마치 기다리 거라도 한 듯 “전투복 상의 빼어도 되요” “귀걸이는 착용해도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합 든 모습이다.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구성된 ‘광주 광산구 여성 예비군 대대’가 입소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89년 백령도에 처음 설치된 우리나라 여성예비군은 최근까지 전국 7개 시·군 및 읍면에서 창설됐으며 순수 지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세하지구 정보 유출 도시공사 과장 계좌추적

광주 서부경찰은 3일 세하 택지구 구 정보 유출과 관련, 광주 도시공사 이모(41) 과장의 금융계좌 15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장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

서·보고용 차트 등 자료를 지난 2005년 11월 광주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장의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흘러간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과장과 도시공사 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3명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서부경찰은 지난 1월 세하지구 개발 정보 유출로 투기 열풍이 불자 통신조화 등 전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한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재판 달라졌다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서 변론 진행... ‘방어권’ 높여

광주지방법원의 형사재판이 피고인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광주지법은 3일 “피고인의 방어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형사부 판사들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운영 방식에 관한 협의를 갖고 공판중심주의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변론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했다. 현행 법정은 대법원 규칙(법정에

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관을 중심으로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하며, 피고인의 좌석은 재판장의 정면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 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옆에 착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그동안 변호인은 사실상 피고인석에서 2~3m 떨어진 변호인석에서 변론을 진행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광주지법이 현재 시행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지난해부터 피고인과

증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실시중이다. 판사가 검찰의 수사 서류만으로 양형을 정했던 과거 재판과는 달리 판사가 피고인과 증인들을 상대로 충분한 심문을 한 뒤 양형을 정하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그동안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사실상 ‘심’에 갇혀 재판을 받는 느낌이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함께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변론을 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획기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좀 도둑 무서워 공부 못하겠어요”

광주 교육대 도서관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CCTV 설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일 광주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을 들어 학내 도서관과 주차장 등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9일부터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내 CCTV 설치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석한 학생 수는 3일 현재 100명. 이 가운데 70명은

광주 교대 도서관 CCTV 설치 설문

찬성한 반면 30명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은 1학기 말까지 여론 조사를 한 뒤 CCTV 설치 여부를 결정지를 계획이다. 총학생회 신원형 정책위원장은 “도서관 등에서 전공서적·MP3 등

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아 CCTV 설치 불가피하다”며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27일 오후 7시께 대학원동 주차장에 주차된 강사 A(34)씨의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노트북과 지갑이 사라지는 등 최근 3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이중섭·변시지 위작 108점 유통

위조단 10여명 적발

서울 서초경찰은 3일 이중섭 등 국내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위조해 전국의 화랑 등에 팔아온 혐의(서명위조)로 미술품 중간 판매상 복모(5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을 입건 또는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씨 등은 무명 화가 4명을 고용해 이중섭과 변시지 등 유명 화가 24명의 그림 90점을 위조하고, 시중에 내도는 전경자·박수근의 위작 38점을 구입한 뒤 이 중 108점을 팔아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복씨 일당은 이만의·도상봉·변종하 등 최근 그림 값이 치솟은 화가들

의 작품을 위조 대상으로 노렸으며, 가짜 그림 108점의 진품 시가는 1천 1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화가들의 도록이나 팸플릿에 나온 그림을 토대로 위작을 그렸으나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로 화랑에서 훔친 ▲변시지의 ‘해녀’ ▲이만의 ‘가족 -달꽃-’, ‘가족 -만남-’ 등 진품 3점을 직접 베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모(64)씨 등 극장 간판그림을 그려온 ‘위조 작가’ 4명은 위작 1점당 3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인물화·풍경화·정물화 등 자신있는 분야의 그림을 맡아 전문적으로 위조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행뉴스

부녀자 상대 날치기

10대 3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3일 한밤중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 날치기를 한 이모(16)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7일 새벽 2시5분께 북구 두암동 주공 아파트 앞에서 이모(여·46)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PC방 게임비 등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094) 김종두



여자친구 옷 벗기고 폭행

광주 북부경찰은 3일 “협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 채팅 친구를 불러내 속 옷만 입힌 채 폭행한 문모(18)군과 정모(여·18)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도소에 폭탄” 협박범 검거

○광주 교도소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경찰 112 신고 센터에 잇따라 전화를 건 40대가 발신지 추적으로 달미. ○3일 대구 서부경찰에 따르면 유모(44·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 1일 밤 11시10분께 자신의 집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서울경찰청에 “KBS를 폭파하겠다”고 전화한 후, 20분 뒤엔 제주경찰청에 “공항을 날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유씨는 또 전남경찰청에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 교도소를 파괴하겠다”고 협박, 군과 경찰에 비상(?)을 내렸었다고. /이종행 기자 golee@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

건우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성준
TEL.(062)682-8383~4

주식회사동화
DONGHWA CO.,LTD.
대표이사 임향숙
TEL.(062)681-6885

삼우산업(주)
대표이사 류필선
TEL.(062)366-8330

(주)태원건설
대표이사 김종환
TEL.(062)525-4400